

놓치기 아까운 이달의 책



● 신라로 들어가는 '뜨거운' 열쇠
 《색공지신미실》이종욱 지음 | 푸른역사 | 212쪽 | 값 10,000원

김대문이 신문왕 때 쓴 《화랑세기》에는 화랑의 우두머리인 풍월주 32명을 비롯해 400명의 신라인이 등장한다. 8세 풍월주 문노, 15세 풍월주 유신, 18세 풍월주 춘추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이러한 영웅들 사이에 이상하게 자주 거론되는 여인이 한 명 눈에 띈다. '색공지신', 즉 몸을 상납해 왕의 뒤에서 30년 동안 실권을 행사한 미실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색공은 골품과 지위가 낮은 사람이 그 아내의 성을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저자는 이는 단순한 성풍속이 아니라 아내를 대가로 자신과 그 일족들의 부귀를 얻는 정치적 행위였다고 풀이한다. 실제로 미실은 진흥왕과 진지왕을 거쳐 진평왕대에 이르기까지 신라 왕실에서 색공을 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저자가 미실의 삶을 추적할 수 있었던 단서는 일종의 족보라고 할 수 있는 화랑세기의 세계世系를 통해서다. 세계는 사회적 골품(성골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등)과 비교되는 개인적 골품을 밝히는 장치로서 혈통을 의미한다. 진흥왕은 미실이 동륜태자에게 색공하여 아이를 임신한 줄 모르고 미실을 자신의 침전에 들게 하였다. 결국 미실은 진흥왕을 모시면서 동륜태자의 아이를 낳았고 왕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자기의 딸로 여겨 애송공주로 봉하기도 했다. 이처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내용 때문에 《화랑세기》의 진위가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글쓴이는 '미실이야말로 신라로 들어가는 열쇠'라고 말한다.

미실의 이야기는 제1회 세계문학상을 받은 김별아의 소설 〈미실〉에도 등장한다. 애초에 출판사측에서 김씨에게 이종욱 씨와 함께 미실로 떠나는 여행을 제한했으나 김씨는 이미 소설을 마친 상태라서 거절했다는 후문이다. 김별아의 미실은 2월 말에 출간되었다.

신동섭 기자



● 자연에 시 한 수 더한 것을 '청명'이라 이르더라
 《눈을 헤매는 거대한 수레》이하석 글·사진 | 세계사 | 320쪽 | 값 11,000원

이하석 시인이 행장을 꾸렸다. 우포늪, 순천만, 지리산, 비슬산, 어라연 등 인간의 때가 덜 탄 곳을 찾아간 시인은 본디의 모습을 지켜가기를 소망하며 꼭, 힘주어 발 짹을 남겼다. 시인이 남긴 것은 발 짹만이 아니다. 시인은 각기 자리마다 가장 잘 어울리는 시편들을 바쳤다. 남명의 한시漢詩에서 오규원, 정현중, 황동규, 황지우, 이성복, 장석남 등 한국시단을 대표하는 시인들의 아름다운 시들을 가려 바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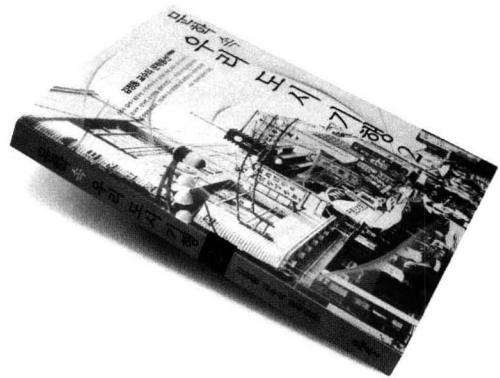
'시와 함께하는 생태환경기행'이라는 부제를 가진 《눈을 헤매는 거대한 수레》는 두 가지 읽기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각기 장소에 대한 시인의 고색한 사유, 해박한 정보를 읽을 수 있다는 즐거움이 하나요, 거기에 바쳐진 시를 읽는 즐거움이 다른 하나다. 우포늪을 걸어가는 시인의 뒤를 쫓아보자.

"고요하다. 진짜 고요가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알 만하다. 그것은 알 수 없는 깊이와 수면 위의 텅 빈 세계가 조성하는 긴장감으로 팽팽한 고요이다. 그것은 살아 있는 고요이다. 살아 있는 것들로 가득 찬 숨결들이 생생히 느껴지는 고요란 말이다."

저자는 우포늪의 고요를 들여다보며, 고요를 비애로 드러낸 김춘수의 시 〈눈〉을 읊는다. "산도 운다는/푸른 달밤이면/나는/그들의 슬픈 혼령을 본다//갈대가 가늘게 몸을 흔들고, 온 눈이 소리 없이 흐느끼는 것을/나는 본다"

생태환경기행이라고 해서 자연의 신음소리만을 담고 있지 않다. 그곳을 삶을 터전으로 알고 살아가는 순박한 사람들의 건강한 모습, 오랜 세월 그들과 함께 살아온 산천과 생물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 녹색길에 놓는 무제치늪을, 주산지의 왕버들 그림자를, 소광리의 푸른빛을 보고 있으면 청명해진다. 그곳에 바쳐진 시가 아니더라도 절로 시 한 편 지어 읊어보고 싶어진다.

박용두 기자



● “걸쭉한 이야기 한 판” 이끄는 당신,
고수가 따로 없군요

《한국문학의 사생활》 김화영 지음 | 문학동네 | 392쪽 | 값 13,000원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는 재미는 오프라 윈프리를 보는 재미다. 투나잇쇼를 보는 재미는 진행자 제이 레노를 만나는 재미다. 같은 논리로 보자면 《한국문학의 사생활》을 반복해 펼치게 하는 데는 우리시대 시인, 평론가, 기자들을 불러놓고 걸쭉한 ‘이야기 한 판’을 유도하는 사회자 김화영 씨의 공이 크다. 이 책은 2002년 가을과 겨울 3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동숭동 문예진흥원에 모인 스물네 명의 작가 시인 평론가들과 나눈 대화 기록이다. 질문들은 주로 작품 동기부터 집필과정, 에피소드 등 주로 작품의 사생활과 관련된 질문들이다. 신변잡기를 듣자는 건 아니다. 대학로 뒤편의 허름한 파진집에다 소주잔 분위기이나, 귀로 듣는 작품 후일담은 텍스트 못잖은 질량을 담보한다.

김화영 씨는 상금이나 인세에 대한 질문도 너살 좋게 던진다. “상금을 받아서 일단 통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한번 옮겼지요”라는 심상대의 발언에 열린 “세탁중이군요”라고 되받아치는 순발력은 60대 나이를 의심케 할 정도다. 머리염색부터 귀고리 착용까지 소설가로서의 자유분방한 차림을 하고 다니는 김영하의 신경을 건드려(?) 놓고 그의 입을 통해 고전소설을 좋아한다는 고백을 끌어내는 체치도 놀랍다. “말 한마디 나오는데 한참 걸리고, 딱딱 끊어지면서 듣는 이를 침묵으로 기다리게 하는” 말투에서 종결어미를 생략하는 신경숙 특유의 문체를 발견하는, 날카로우면서도 신선한 비평은 혀를 내두르게 한다.

이청준과 이승우, 고 김춘수와 고은, 한승원과 박범신, 김주연과 장영희 등이 김화영 씨의 토크쇼에 초대받았다. 때론 진지한 10분 토론으로 혹은 유립식 하이 코미디쇼로, 동네 반상회 분위기로 현란하게 이어간다. 특출한 끼를 지닌 사공, 사회자 당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을 정도다. 김청연 기자

● 소설 속 주인공과 근대 도시를 여행하다!

《문학속 우리 도시 기행2》 김정동 지음 | 푸른역사 | 328쪽 | 값 13,000원

《문학속 우리 도시 기행》(옛오늘, 2001) 이후 3년 만에 펴내는 《문학속 우리 도시 기행2》는 그 두 번째 이야기로 “건축과 문학의 퓨전, 혹은 학문간의 교류를 시도해 문학연구의 다양성을 여는 가치 있는 시도”라는 평가를 받은 1권에 이어 못다한 이야기를 담았다.

근대사와 건축물에 대한 집념으로 열한 번째 책을 펴낸 저자 김정동 교수는 한국의 근현대 건축물 보존운동에 앞장서며 그 현장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그 속의 건축물이다. 소설, 시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뒤를 쫓아 도시 건축을 섭렵하는 것을 ‘문학동선’이라 명명하고 자신이 주인공이듯, 당대의 생생한 느낌으로 재구성했다.

‘해방 전의 문학동선을 찾아’ ‘해방 후의 문학동선을 찾아’ ‘우리 삶 속의 문학동선’을 제목으로 한 전체 3부 구성은 시기별로 문학작품을 나누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16편의 소설들에 나타나는 문학동선은 그 자체로 주인공과 저자가 함께 떠나는 여행이랄 수 있다. 조명희의 <낙동강>에서는 현재의 부산시 북구 구포동 구포역 일대인 낙동강 어귀 동래군 구포면 구포리를, 주요섭의 <구름을 잡으려고>에서는 주인공의 행적을 통해 당대 체물포의 모습을 더듬는다. 해방 후 소설인 김승옥의 <무진기행>에서는 실제로는 없는 도시인 ‘무진’을 작가의 고향 순천과 연계한다. ‘무진의 골목, 흉담, 학교 등이 있는 거리는 김훈, 박래부의 《문학기행》(한국일보사, 1987)에 의하면 금곡동 154번지 일대’라는 본문 내용처럼 여러 자료를 근거로 무진의 거리를 누비기도 한다. 서두에 각 소설마다 작가의 연보와 작품세계를 언급한 것도 해당 소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높인다.

홍이현 기자